

전남

농어촌 정비법에 지선민들 내쫓기나

<간척지 매립에 피해 입은 주민>

올해부터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해남군 산이면·마산면 등 간척지 인근 지역농민들이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문제로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척지 매립사업으로 갯벌 등이 물로 변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지선민)들에게 우선 경작권이 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배정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개답(開闢) 공사가 완료된 해남지역 간척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일시경작'을 하려면 오는 3월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해남과 영암 삼호지구 등 1천240농가가 '일시경작'을 했다.

지난해까지 간척지 '일시경작' 대상자는 ▲해당 간척지에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

올해부터 간척지 '일시경작' 우선 대상서 배제

해남 산이·마산면 등 6개면 피해주민들 반발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한국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였다.

지난 2008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일시경작 대상자격이 바뀌었다.

이러한 시행령에 대비해 간척지 인근 지선민들은 지난해부터 마을 영농회와 주민들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어 등록하는 등 간척지 경작권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간척지 피해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일시경작 우선권 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 간척지 인근 주민이 아닌 해남군 내 모든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이 모두 대상자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남군 산이면 등 6개면 간척지 피해주민들은 "지금까지 간척으로 인한 피해와 그동안 일시경작으로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간척지 피해 지선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이 우선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최근 산이면사무소에서 열린 간척지 급호 1-1공구 200ha에 간척지에 조성될 계획인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시행령 개정과 피해 주민 우선 대상자 선정 지침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며 "대상자 결정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원칙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내 일시경작 대상 간척지는 산이, 계곡, 마산, 화원, 문내, 황산면에 속한 2천486ha이며 올해 산이면 급호 1-1공구 771ha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강진생태호수공원 가족과 함께 오세요"

식물섬 등 천변저류지 개장

강진에 다목적 천변 생태 호수공원인 '강진천변 저류지(사진)'가 문을 열었다.

'강진천변 저류지'는 전남도가 상습수해지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강진읍 송전리 일대 10만여㎡ 부지에 9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2일 개장했다.

강진천변 저류지에는 산책로, 가동보, 수변데크, 목교, 식물섬,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강진을 대표하는 고려청자 모형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홍수 발생 때 하천변 유량을 분담, 조절함으로써 농경지 침수 예방은 물론 산불진화 등에 필요한 15만여㎡에 이르는 저류 용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와 함께 식물, 조류, 곤충 등의 작은 동식물이 저류지에서 성장, 활동하는 모습을 지역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졌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유망화훼 '알스트로메리아' 연중 생산

도농기원, 지열조절 시스템 도입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알스트로메리아'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알스트로메리아 고품질 절화(折花)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생육 및 꽃눈분화가 땅속의 뿌리줄기 부위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 이상 되면 뿌리 성장과 꽃눈 분화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10℃ 이하로 내려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닐하우스내 지온은 겨울철에는 10~12℃ 이하로 낮고, 여름철에는 20℃ 이상 상승해 연중 생산에 애로가 많았다. 연구진은 차광망과 방·온수 지열 히트펌프를 활용해 지온을 조절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지열조절 시스템을 활용하면 겨울과 여름철 알스트로메리아 생산량이 각각 87%, 25% 증가해 10a당 32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닐하우스내 지온은 겨울철에는 10~12℃ 이하로 낮고, 여름철에는 20℃ 이상 상승해 연중 생산에 애로가 많았다. 연구진은 차광망과 방·온수 지열 히트펌프를 활용해 지온을 조절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지열조절 시스템을 활용하면 겨울과 여름철 알스트로메리아 생산량이 각각 87%, 25% 증가해 10a당 32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농업기술원 조경철 연구사는 "지온조절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알스트로메리아의 연중 안정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스트로메리아는 지난 1990년대 도입돼 화순, 장성, 무안, 함평 지역의 등지에서 4ha(전국의 90%)를 재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완도경찰, 아동보호 간담회

완도경찰서(서장 노병현)는 최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1·4분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성 협의회장을 비롯해 초등학교장, 청소년 선도위원, 각급 사회단체장 등 협의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원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범죄에 대해 정기적 간담회 실시 및 지역사회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아동범죄의 실질적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시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목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23일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관에 마련된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장에서 교복을 고르고 있다. 목포시는 저소득층 신입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25개 중·고등학교 3천500점의 교복을 수집했다.

목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23일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관에 마련된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장에서 교복을 고르고 있다. 목포시는 저소득층 신입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25개 중·고등학교 3천500점의 교복을 수집했다.

완도 '도시민 유치 원년의 해' 선포

완도군이 올해를 '도시민 유치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이는 도시민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살기좋은 완도, 건강의 섬 완도'라는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완도군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상담 창구 기능을 할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설치했

다"고 23일 밝혔다. 또 도시민 농촌유치 '장기 발전계획 컨설팅'을 통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귀촌 현황, 빈집정보, 지원정책 등 도시민 유치 여건을 분석해 도시민 이주 희망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경찰, 신뢰획득 다짐

나주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22일 경찰서 이화마루에서 '시민신뢰획득을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과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정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전 직원 이 낭독, 자체사고 방지 및 청렴도를 다짐했다.

김원국 서장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지안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월출산 인공 암벽등반 '인기'

청소년 대기 훈련 각광... 해마다 5천여명 찾아

동양 최대규모인 영암 월출산 인공 암벽경기장(사진)이 청소년 대기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3일 영암군 산악연맹에 따르면 매년 평균 산악인 5천여명이 방문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3만 5천700여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영암군 산악연맹은 ▲지역민을 위한 암벽동호인 육성 ▲일반인을 위한 암벽 체험교실 ▲사회복지단체나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산악 체험 캠프를 비롯해 장비착용과 매듭짓는 법, 암벽등반 기초훈련, 실전 등반훈련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부대시설로는 족구장과 동년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가 선용에 매우 적합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암벽등반 체험교실을 통해 강한 도전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입시 준비와 학습에 지쳐있는 학교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승희기자 ish@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sung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Sea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Premium Country House Sale)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KMB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2)364-8700.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sales.